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5년 4월

선교편지 제 76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디고스 예일 교회'의 헌당 예배를 2015년 3월 17일 우리 주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부지를 찾기 위하여 거의 6개월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네 구석, 구석을 돌아 다닌 끝에 미처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부지를 구입할 수 있게 하시고, 착공 예배를 드린지 10개월만에 마치 마라톤 경주와도 같은 긴 과정을 지나 그렇게도 갈망하였던 '헌당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마침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힘에 부치는 어려운 건축 과정을 지나면서, 고비 고비

마다 '정말 완공이 될까?' 또는 '헌당 예배는 과연 드릴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완공이 서서히 가까와 짐에 따라, 들뜬 마음으로 역사(?)에 기록될 만한 헌당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욕심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헌당 예배를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찬양팀의 맹렬한 연습이 시작되고, 대학 장학생들로 구성된 찬양대의 화음이 있는 찬양도 준비하고, 12명의 대학 장학생을 새롭게 선발하여 성경 공부도 시작하였습니다. 예배에 참여할 주민들을 위하여 350명분의 맛있는 점심 도시락도 준비하고, 옷과 신발, 가방 등의 선물도 준비 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성전을 봉헌하며 교회 자체로도 오랜동안 기억이 될만한 것을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의 과정과 기도와 물질로 힘껏 참여한 분들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먼 훗날 이 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주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후손들이 기억해 주고, 기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념 식수용 종려 나무와 함께 멋진 팻말을 준비하고, 비싼 동판으로 머릿돌을 제작하여 모든 기록을 보관하기 위하여 전문 업체와 연락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거의 마무리 될 무렵, 교회의 이곳 저곳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작업자들이 오랜 공사가 끝나감에 따라 교회 곳곳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교회 바닥, 벽, 입구등에 자신의 이름을 세겨 넣은 것입니다. 마치 관리되지 않은 오래된 유적지처럼 교회의 이곳, 저곳에 작업자의 이름들이 세겨지며 흉한 모습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로서도 나름대로 기억에 남는 큰 공사이고, 본인의 이름이 교회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치않는 흔적이 마치 교회를 더럽힌 것처럼 불쾌하게 생각되어,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작업자의 이름이 세겨진 부분을 재작업을 통하여 모두 지워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헌당 예배를 앞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여호와 자신의 이름'외에는 다른 이름을 허락하신 일이 없음을 강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비록 고상하게 머릿돌을 세워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의 이름과 기록을 남길지라도, 그 또한 교회 바닥에 이름을 세겨넣는 건축 작업자의 마음과 별로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록과 이름을 남겨 놓는 일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좋게 해석 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의 이름'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생색을 내는 모습이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2015년 3월 17일, '디고스 예일 교회'의 역사에 사람의 흔적은 모두 지워 버리고, 우리 여호와 이름만을 온전히 높이는 헌당 예배를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허락하신 기도 응답의 성전 '디고스 예일 교회'를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쓰임받는 기쁨과 감사에 여호와께 성결하고, 짐 없는 헌신을 다짐하며, 이 제단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강수와 같이 터져 이 선교지를 가득 적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는 주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온전히 높이는 복된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 시편 84편

<sup>1</sup>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sup>2</sup>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sup>3</sup>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sup>4</sup>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sup>5</sup>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sup>6</sup>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sup>7</sup>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sup>8</sup>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sup>9</sup>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피 보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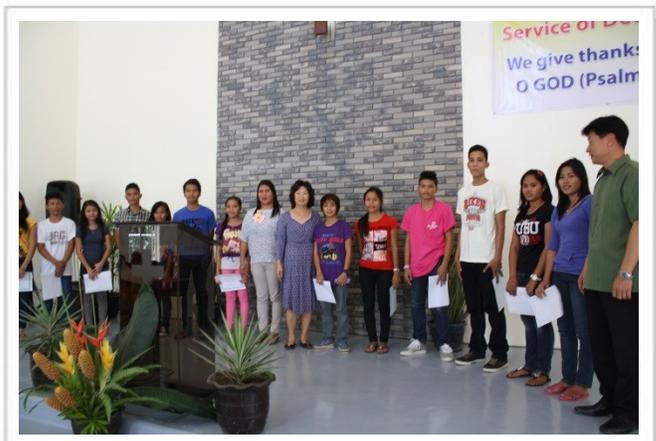
<sup>10</sup>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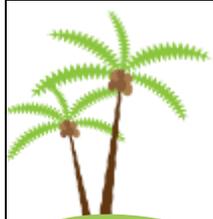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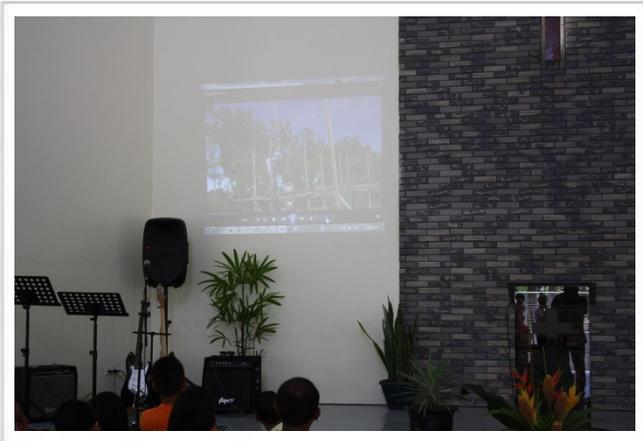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sup>11</sup>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sup>12</sup>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